

19일 Market Index			
코스피	↓	코스닥	↓
3929.51	(-24.11)	871.32	(-7.38)
금리	↓	환율	↓
2.869	(-0.003)	1465.05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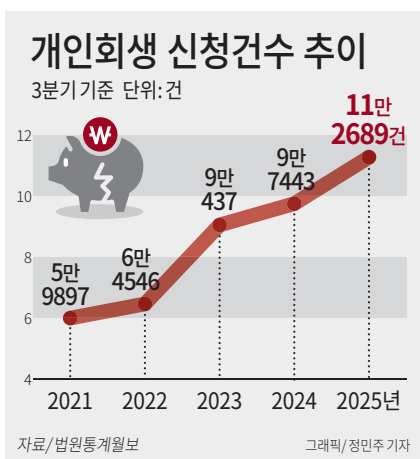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사상최대’ 더딘 경기회복에 빛 못갠다

법원, 3분기 누적 15.7% 증가
코로나19 전후 6만건대의 2배

경기침체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면서 올 3분기까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기에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일정기간(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다.

1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11만2689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다. <관련기사 3면>
개인회생신청 접수는 코로나19 전후로 6만건대에서 움직이다 올해 2배가량 급증했다. 9월말 기준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2019년 7만134건 ▲2020년 6만5620건 ▲2021년 5만9897건으로 감소한 뒤 ▲2022년 6만4546건 ▲2023년 9만437건 ▲2024년 9만7443건으로 상승했다.

◆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증가 요인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경기회복이 더뎠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

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차주수는 1971만명으로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88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가계대출자 266만명은 연 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그 가운데 149만명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했다. 소비감소로 영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도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1분기말(1067조6000억원)과 비교해 3개월 사이 2조원 더 불어나며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노란우산공제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도 9월 기준 1조1879억원으로 현재 추이라면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뉴테크놀로지 포럼’ 19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韓-UAE, 100년 동행에 경제협력 지평 확장”

이재명 대통령, BRT 참석
양국 기업인들 참석 협력의지 다져
이재용·정의선 등 총수·관계자 참여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국과 UAE의 양국 기업인들과 만났다. 우리나라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해 중동 지역 기업인들과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양국 기업인 간 경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는데,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다.

BRT 행사엔 양국 정부 기관 관계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주원 LG전자 CEO 등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함께 했다. SK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방산 기업인 LIG넥스원과 불닭볶음면을 생산하는 삼양식품 등도 동행했다. <관련기사 6면>

다양한 분야의 재계 총수들이 모이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만큼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등 여러 분야의 양국 전략·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BRT를 통해 한국과 UAE가 100년의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여정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에 앞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인프라, 원전, 문화 등 분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후 아크부대 방문을 끝으로 2박3일의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UAE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중동 국가이자, 국빈 방문지다. UAE는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협력국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회담을 통

해 AI·방산·원전 등 모두를 아우르는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AI·반도체 분야에선 양국의 전략적 수요와 강점을 결합해 공동 투자·개발·수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고, 원전 분야에선 ‘바라카 모델’을 적극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

UAE를 떠난 이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이집트에 공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 도착 다음날인 20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오찬을 갖는다. 오후에는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하고 저녁에는 재외동포·지상사들과 간담회를 한다. 카이로대학교 연설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對) 중동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세계 첫 5000척 선박 건조 HD현대, 51년만의 대기록

총 68개국, 700여개 선주사 대상
필리핀에 초계함 5000번째 인도

HD현대가 지난 1974년 첫 선박을 인도한 지 51년 만에 세계 최초로 5000척의 선박을 건조·인도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HD현대 19일 울산HD현대중공업에서 선박 5000척 인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HD현대 5000번째로 인도한 선박은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인 ‘디에고 실랑함’이다. 이 함정은 길이 118.4m, 폭 14.9m, 순항속도 15노트(28km/h), 항속거리 4500해리(8330km)를 갖춘 최신에 함정으로, 지난 3월 진수돼 10월 필리핀 해군에 인도됐다. 필리핀 해군은 이미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위함·초계함 등을 다수 도입해 운용 중이며, ‘디에고 실랑함’은 한국 조선 방산 수출 확대 흐름 속에서 상징적 의미를 더한다.

HD현대는 지난 1974년 1호선인 26만t급 초대형 유조선(VLCC) ‘에틀랜틱 배런호’를 시작으로 이번 필리핀 초계함 ‘디에고 실랑함’까지 총 68개국 700여개 선주사에 선박을 인도했다. 조선소별로 보면 HD현대중공업에서 2631척, HD현대미포조선에서 1570척, HD현대삼호중공업에서 799척의 선박을 인

도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조선 역사를 가진 유럽과 일본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다.

HD현대는 반세기 동안 초대형 유조선(VLCC)과 컨테이너선, LNG선, PC선 등 다양한 상선뿐 아니라 군함·초계함 등 특수선 영역까지 선종을 확대해 왔다. 한국 조선업은 영국 클락슨리서치 기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HD현대 조선 3사는 세계 최대 조선 그룹으로 평가된다.

선박의 길이를 250m로 가정할 경우, 선박 5000척의 총길이는 1250km에 달한다. 이는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직선거리(약 1150km)보다 길며 에베레스트산(약 8800m) 높이의 140배를 웃도는 규모다.

조선업은 국가 경제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조선업은 매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5~7% 수준을 차지해 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5000척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자부심이자 세계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도전의 역사”라며 “함께 만든 도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음 5000척, 또 다른 반세기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승용 기자 lsy2665@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한미 협상 당시 “낭떠러지에서 뛰어 내릴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긴다”
▲공익사업으로 기존 출입 막히면…권익위 “새 진입로 마련” 판단



▲안규백, 준장 진급자 89명에 삼정검 수여…계엄버스 탑승자 등 보류
▲北 김정은, 국가보위성 등 공안기관 방문해 격려

▲與 ‘1인1표제’ 당원 투표 논란…친명 모임 “원칙 없는 혼란 해명하라”
▲美 前당국자 “北경제개발, 북미대화 당근으로 활용 가능”